

check ME up!

2026년 8월 4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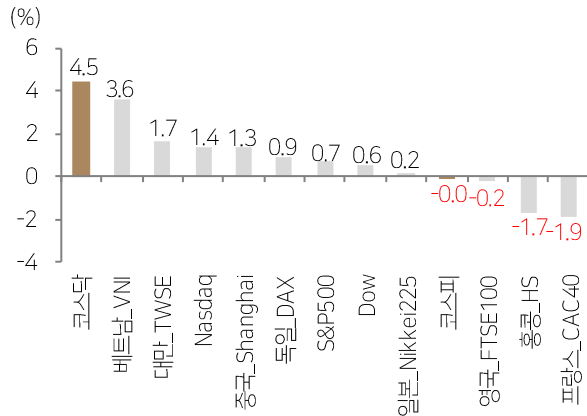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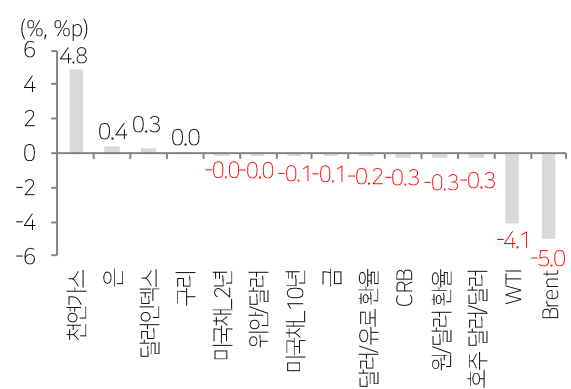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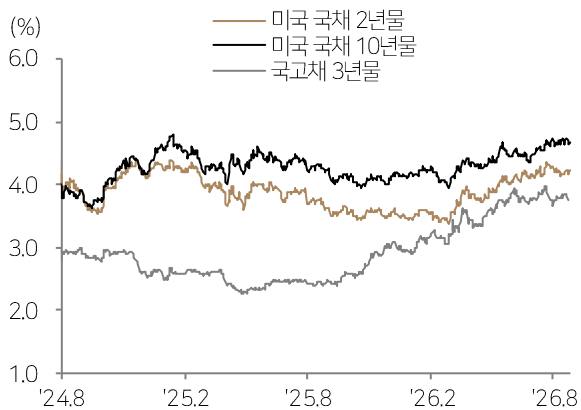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8/21일 대비 8/27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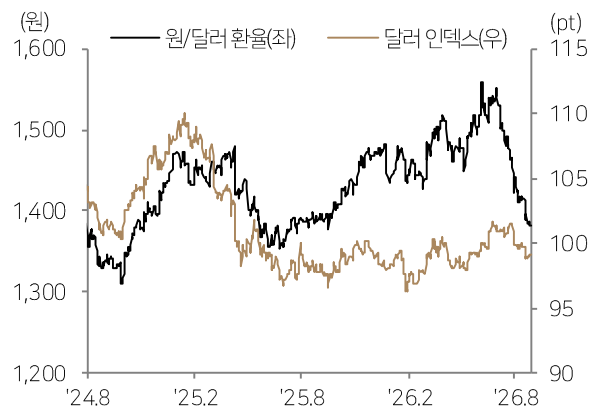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8/21일 대비 8/27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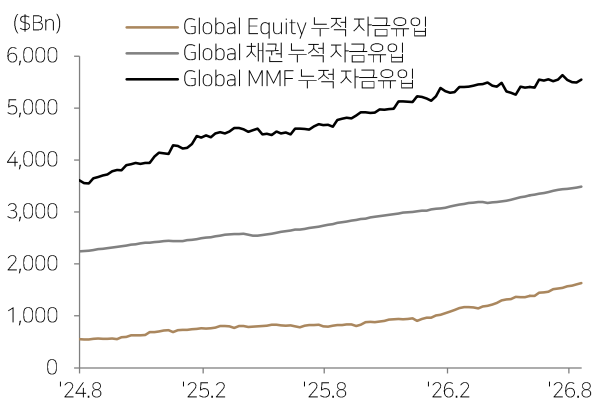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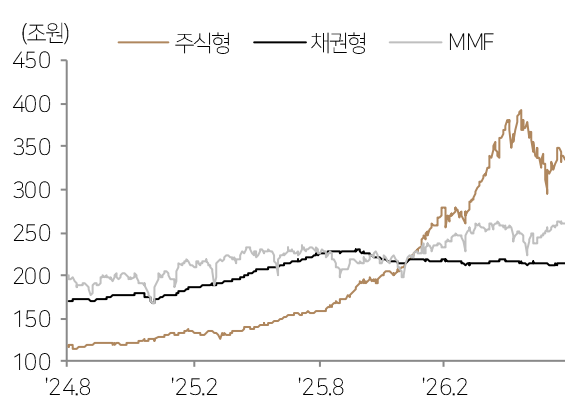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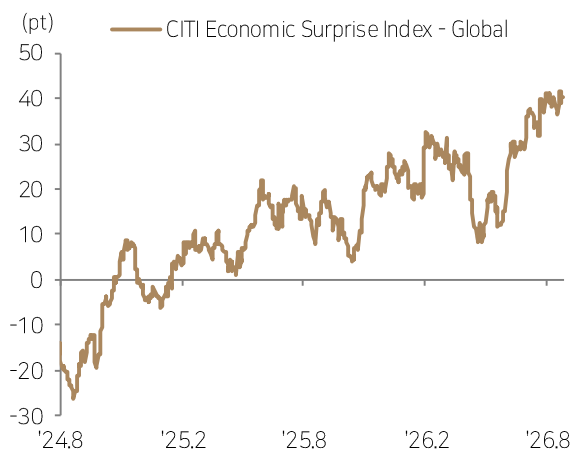
II. 경제지표 Preview

- 미국의 7월 고용지표 둔화는 9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한하는 소재로 작용. 지난달 고용은 총량 감소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의 둔화까지 확인되며 금리 정책 측면의 부담을 경감. 현재도 동결 가능성이 6:4 정도로 우위. 현재 컨센서스는 고용의 소폭 증가로 형성. 고용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일자리 생성도 부진. 연초 600만건대의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일자리 형성 여부도 확인 필요. 고용의 강한 호조는 금리 전망에 영향 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변수
- 하반기도 높은 수출 증가율이 이어질지 여부도 확인 필요. 지난 해 3분기부터 레거시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액의 가시적 증가가 나타났던 만큼 점진적으로 기저도 높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임은 참고할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8-31	한국	7월 광공업생산	%yoy	4.7	5.8
2026-09-01	한국	8월 수출입	%yoy	62.9/25.3	62.9/26.5
2026-09-01	유로존	8월(잠정) 소비자물가지수	%yoy	3.2	2.9
2026-09-01	미국	7월 JOLTs 구인이직건수	천건	7,380	7,359
2026-09-01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Index	55.2	55.6
2026-09-02	한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1	2.8
2026-09-02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천건	48	44
2026-09-02	미국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0.5	1.1
2026-09-02	미국	7월 제조업 수주	%mom	0.6	-0.3
2026-09-03	유로존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4.6
2026-09-03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Index	54.3	54.1
2026-09-04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변동	천건	55	-23
2026-09-04	미국	8월 실업률	%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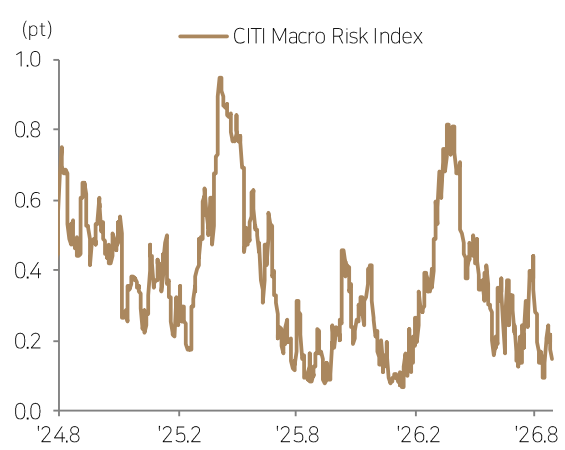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9/2	미국	상	브로드컴 실적 발표	■ 현지시간 9/2 브로드컴 실적 발표 예정. 지난 6월 실적 발표 당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달하며 반도체주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음 ■ 최근 브로드컴은 앤스로픽 등 AI 기업의 반도체·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달러 이상의 부채 조달을 협상 중으로 알려짐. 전통적으로 자본경량 모델을 유지해 온 브로드컴으로서는 이례적인 레버리지 확대에 해당. 이번 실적은 AI 반도체 매출·가이던스 서프라이즈 여부와 함께, 대규모 부채 조달에 대한 설명(수요 확인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인해야 할 필요
9/3	한국	상	2027년도 예산안 발표 시한	■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시한은 9월 3일.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정부안 확정발표는 통상 8월 말에 이뤄지는 것이 관례 ■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800조원+a)로 예산안 편성 예정이며, 총 규모와 국채 발행 수요 등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전에 논의되었던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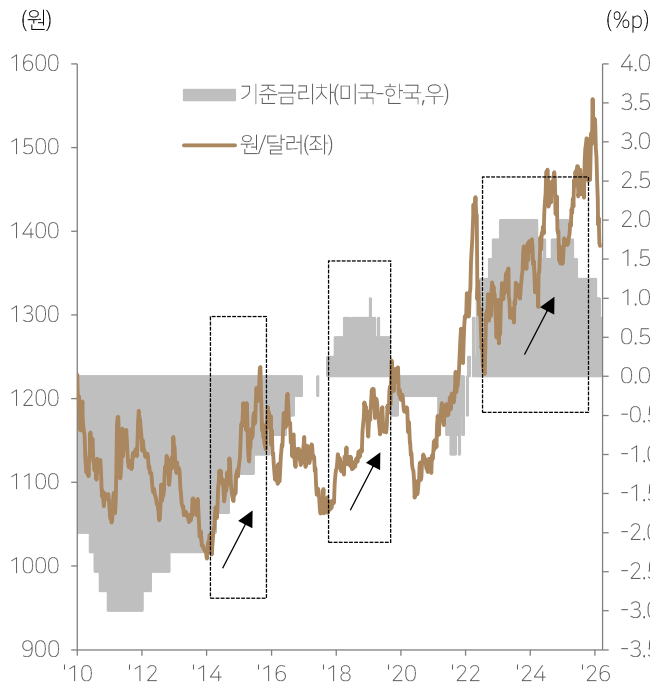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8/21~08/27) 증시 동향	■ KOSPI(-0.01%) 하락, KOSDAQ(4.45%) 상승. KOSPI는 기계(+14.9%), 건설,건축관련(+13.1%), IT가전(+11.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자동차(-4.4%), 반도체(-3.1%), 에너지(-1.7%) 업종 하락. 코스피는 삼성전자 주주환원 발표 이후 재료 소멸로 인한 셀온 매물 출회되며 약세 출발. 이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금통위, 미 연준 잭슨홀 미팅 등 대내외 주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 이어졌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 가능성 후퇴에 따른 유가, 금리 부담 완화에 반등 시도. 주 후반 엔비디아의 예상치 상회하는 매출·가이던스 제시에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 주간 낙폭을 만회하며 마감 ■ DOW(+0.6%), S&P500(+0.7%), NASDAQ(+1.4%) 상승. AI 투자 부담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경계 심리에 약세 출발. 이후 중동 지역 긴장감 완화에 따른 유가·금리 하락에도 관망세 이어지며 제한적 등락을 거듭. 주 후반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 기술주 중심 상승 마감
차주 (08/31~09/04) 증시 전망	■ 8월 이후 약 6,200~7,000pt 수준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주 중 엔비디아까지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실적발표를 했고, 여전히 경계 영역에 있는 미국채 금리도 일단은 상단이 제한되며 상기 박스권 상단 영역으로의 반등이 진행. 그러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수급 주체가 없고, 금리와 AI 밸류체인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경계선 상. 2분기 실적시즌 이후 이익 전망 상향도 둔화 중 이어서 탄력적인 상승까지 기대는 어려워 보임.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대응이 필요 ■ 멀티플 정상화만으로도 반등 여력은 있겠지만, 미 정부와 연준의 금리 통제 효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선결과제. 당장 잭슨홀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 상황 완화와 유가 안정, 9월 FOMC 동결 확인, 바이백 등 정책에 의한 실제 시중금리 제약 흐름 확인 등이 선결되어야 추가 상승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당장은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대응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듯. 금주 코스피가 보합권 수익률을 보인 반면, 동일가중지수는 +4.4%로 우위. 미국에서 반도체보다 M7과 S/W쪽 주가 흐름이 양호할 때 국내에선 반도체보다 주변 AI 인프라주의 상대수익률이 양호한 경향도 참고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한-미 정책금리차가 환율의 뛰어난 설명변수는 아니지만, 스프레드의 가파른 움직임이나 역전은 방향성에 일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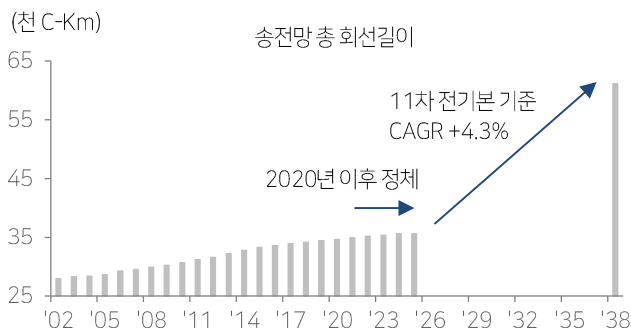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한국 원화는 전역적인 관점에서 금리차에 크게 민감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음. 그러나 그림에 표시해 둔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간의 기준금리차가 급격히 축소되거나 역전(미국>한국)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원화의 약세 방향성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음
- 전일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3.0%로 설정. 미국-한국 기준금리 격차는 0.75%p로 축소. 2022년 이후 진행된 추세적인 원화 약세를 모두 금리차로 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면, 원화 약세의 원인 중 한 가지가 희석된 것. 그리고 7~8월 원화 강세에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한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한 전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한은은 향후 추가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선제적 2회 인상 및 속도조절 언급 등을 감안 하면, 적어도 당분간은 금리차가 유지될 수 있고, 다수의 원화 강세 소재 중 한 가지는 중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26일 발표된 12차 전기본 잠정안과, 정채되어 있는 송전망 현황

항목	현재	11차	12차(잠정)
기간	-	2024~2038	2026~2040
목표 전력소비량	-	624.5TWh	847.3~885.1TWh
최대전력 목표수요	-	129.3GW	158.4~165.0GW
장기 재생에너지 (사업용)	37.2GW	121.9GW	220GW
태양광(사업용)	30.8GW	77.2GW	155.3GW
풍력	2.5GW	40.7GW	60.5GW



Source: 기후에너지환경부, EPSIS, 다올투자증권

- 지난 8/26일 12차 전기본 잠정안이 발표. 해당 안은 재생에너지 부문을 먼저 발표한 것이고 원전 포함 전체 믹스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
- 특징적인 내용은, AIDC와 반도체 투자 확대를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 자체를 큰 폭으로 상향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까지 확대(11차의 거의 두배)하는 등 신재생 보급 목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한 점.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만큼 공격적인 확장이지만, 일단 수요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라는 방향성은 분명
-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송전망. 결국 어떤 발전원을 선택해도 수요 전망 자체가 확대됐고,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송/변전설비 확충은 필수적.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다면 송전망 수요는 더욱 증가할 여지. 2020년 이후 국내 송전망 회선 연장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며, 기존 11차 계획만으로도 송전망의 가파른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